



CJ제일제당
日냉동만두 시장
정조준

L1



Life

롯데바이오
올해 세번째
CMO 계약

L2



국산 전동화 ‘가속’, 수입 전기차 ‘집중’… 신차 레이스 돌입

모빌리티

하반기 車시장 ‘신차 출격’

2025년 하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은 국산차의 전동화 신차 공세와 수입차의 제한적 라인업 전략이 뚜렷하게 대비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PBV(목적기반차) 등 다양한 신차를 준비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차 브랜드는 상반기보다 신차 출시 규모가 줄어들어 전기차 위주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 잇따라 신차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기아는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5 출시를 앞두고 있다. EV5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흥행을 이어가는 EV3, EV4에 이어 기아의 보급형 전기차 제품군을 완성하는 모델이다. EV5는 82kWh 용량의 NCM 배터리를 탑재해 약 50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아는 최초의 전동화 목적기반차(PBV) ‘PV5’를 출시했다. PV5는 1~3열 시트 배열을 ▲2-3-0 ▲1-2-2 ▲2-2-3 등으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모듈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 3열을 제거해 화물 적재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전좌석을 장착해 7인승 패밀리카로 운용할 수 있다.

현대차는 고성능 전기 세단 아이오닉



기아 보급형 전기차 EV5 출시 앞둔
모듈형 구조 목적기반차 ‘PV5’ 선보
현대차 고성능 세단 ‘아이오닉6N’
KG모빌리티 하이브리드 SUV 공략

6N을 내놓는다. 최고출력 650마력, 제로백 3.2초, 최고속도 260km/h 수준의 성능을 갖춰 현대차가 전기 스포츠 세단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주력 라인업이다. KG모빌리티는 지난 7월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며 하이브리드 SUV 시장 공략에 나섰다.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1.83kWh 고전압 배터리를 적용했으며, 복합연비 15.0km/L, 도심 주행 연비는 15.8km/L에 달한다. 르노코리아는 ‘세닉 E-테크 100% 일렉트릭’을 출시해 이달부터 출고에 돌입했다. 세닉에는 LG에너지솔루션의 87킬로와트시(kWh)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가 탑재됐다. 1회 충전시 최대 460km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충전 시 20~80% 충전에 약 34분이 걸린다. 수입차시장에서는 BYD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중형 전기 세단 ‘셀(Seal)’ 출고

BYD 합리적 가격 전기 세단 ‘셀’
BMW 하반기, 6종 신규모델 선보
벤츠 고성능·초력서리 모델 투입
아우디 ‘A6e-트론’ 전기세단 강화

를 시작으로 중형 SUV ‘씨라이언 7(Sea Lion 7)’도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셀은 82.56KW 용량의 LFP 배터리가 탑재, 1회 충전으로 최대 407km(상온 기준)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 가격은 보조금 적용 이전 기준 4690만원으로 보조금 적용 시 4000만원 초반에 형성

될 것으로 보인다. ‘씨라이언 7’은 BYD의 최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플랫폼 3.0 EVO를 기반으로 개발된 중형급 SUV로 가격은 5000만원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BMW는 올해 하반기 총 6종의 신규 모델을 내놓는다. 3분기에는 ▲120 ▲M135 xDrive ▲220 ▲228 xDrive ▲M235 xDrive 등 5종이 잇따라 출시된다. 여기에 4분기에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고성능 모델로 꼽히는 M5 투어링이 합류하며 하반기 라인업을 완성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하반기 한국 시장에 고성능과 초력서리 모델을 잇따라 투입한다. AMG의 CLE 53 4MATIC+ 쿠페와 GLS 63 4MATIC+가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마이바흐 최초의 오픈톱 모델 SL 680도 공개됐다. 전동화 전환 속에서도 내연기관 기반 고성능 모델을 강화하고 초호소력서리 라인업을 선보인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는 A6 e-트론과 고성능 버전인 S6 e-트론을 통해 전기 세단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A6e-트론은 프리미엄 전기차 전용 플랫폼 ‘PPE’가 적용된 첫 번째 세단 모델로 동급 대비 최대 충전 출력(270kW)을 자랑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국산 브랜드는 대형형부터 고성능, PBV까지 전방위 전동화 공세를 펼치는 반면 수입차는 EV 중심의 소수 라인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전기차 단점 삭제… 첨단기술 집약한 ‘프리미엄 세단’

YG의 CAR TALK 자동차

A6 e-트론

주행성능·디자인·첨단기능 다 갖춰
노면별 주행 맞춤… 승차감 뛰어나
고효율 배터리로 주행거리 부담↓

4시간 가량 차량을 경험하면서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차량은 극히 드물다. 특히 전기차는 처음이다.

바로 아우디가 브랜드 최초로 전기차 전용 PPE 플랫폼 기반으로 내놓은 첫 프리미엄 세단 아우디 A6 이트론(A6e-트론)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안정적인 주행성능과 스포티한 디자인, 첨단



‘더 뉴 아우디 A6 e-트론’ 주행 모습.

/아우디코리아

기능까지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날 시승한 A6 e-트론 어드밴스드 트림의 첫 인상은 길게 빠진 차체와 낮은 루프라인을 적용해 날렵함이 묻

어났다. 투명도 조절이 가능한 스위처블 파노라믹 루프는 열과 눈부심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스포츠 시트, 전동 및 열선·통풍 기능을 적용해 국내 소비자

들의 눈높이를 완벽하게 맞췄다.

서울 종로에 있는 영풍빌딩을 출발해 강원도 원주까지 왕복 230km 구간에서 시승을 진행했다.

시동을 걸고 도심을 주행하면서 A6 e-트론은 아우디의 첨단 기술력이 집약된 차량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노면 진동과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증강현실(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교통 표지판, 내비게이션 정보를 실시간으로 띄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노면 상태에 따라 균형·다이내믹·승차감·효율 등 주행 모드를 조절하는 기능은 전기차 특유의 딱딱한 승차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전기차의

최대 단점인 울컥이는 출발과 예고 없는 급감속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매번 전기차 충전을 고민하게 했던 주행 거리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했다. 1회 충전 시 주행 거리는 복합기준 469km이며 공인 표준 전비는 복합 기준 4.5km/kWh이다. 이날 주행 후 전비는 7.1km/kWh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완충시 600km까지도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효율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동급 대비 최대 수준인 270kW의 최대 충전 출력으로 10~80% 충전 시 약 21분 만에 충전할 수 있어 충전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도 줄었다.

다만 차량의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다. A6e-트론은 트림에 따라 9459만원부터 1억586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아우디의 특별 전기차 지원금(약 1000만원 지원, 100대 한정)을 적용하면 매력적인 차임은 틀림없다. /양성운 기자 ysw@

메트로 한줄뉴스



▲홍명보호 미국 입성…‘첫 발탁’ 카스트로프 웃으며 합류
▲켈리가 님의 길 오스틴이 있다…선두 LG의 원동력 된 ‘팀 문화’
/사진 뉴시스

▲라이더컵 유럽팀 명단 확정…직전 대회 12명 중 1명만 변화
▲U-16 남자농구, 몽골에 85-59 대승…아시아컵 2연승

▲국외 유출된 금산 보석사 ‘신중도’ 고국으로…獨 경매서 낙찰
▲경북국 근정전 ‘호랑이’ 멀리서만 보세요… 다음 달까지 월대 출입 제한